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내일 시행

지원자 49만명 육박...졸업생 1만5천여명 증가 코로나 확진·유증상 수험생 오프라인 응시 가능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평가가 31일 치러진다. 이번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을 가늠해 보고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천124개 고등학교와 456개 지정 학원에서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자 수는 48만9천370명이다. 재학생이 39만7천119명이고 졸업생 등(검정고시 출신 포함) 수험생은 9만2천251명이다.

전체 지원자 수는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1만2천222명 증가했다. 재학생은 3

천354명 감소했으며 졸업생 등은 1만5천 576명 증가했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지원자 수가 2만9천307명 줄고, 재학생 수는 1만1천943명 감소했다.

졸업생 등은 작년의 2022학년도 9월 모평보다 1만7천364명 감소했지만, 2021학년도보다는 1만4천191명, 2020학년도보다는 2천244명 각각 늘었다.

졸업생 응시자 비중도 18.9%로 2022학년도(21.1%)보다 낮아졌지만, 2021학년도(16%), 2020학년도(16.4%)보다는 높아졌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 비율이 1

6.1%로 6월 모의평가 접수자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래 가장 높았다.

졸업생 비율은 모의평가보다 실제 수능에서 더 높아진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졸업생 등 지원자 비율은 29.2%,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29.8%였으며 30%가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모의평가도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공통과목은 국어나 수학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선택과목은 1개 과목을 골라 보면 된다.

문제지는 영역별로 공통과목과 모든 선택과목이 포함된 합권 형태로 제공되며, 수험생은 문제지에서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 부분을 찾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탐구영역은 선택과목당 시험 시간이 30분이며 과목별 시험이 끝나면 2분 이내에 문제지를 회수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수능과 마찬가지로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다.

6월 모평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시험 당일 발

열 등 유증상 수험생도 오프라인으로 응시할 수 있다.

확진 수험생 중 고3 재학생은 분리 시험실 마련이 가능한 경우 학교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졸업생 중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수능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응시를 신청하면 시도별로 지정된 별도 시험장 21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하거나 종료 후 접수처에서 문답지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자택에서 응시한 후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 답안을 제출하면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다음달 1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온라인 응시생의 성적은 응시생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활용해 이뤄지므로, 답안을 작성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은 9월3일 오후 6시까지 받고, 정답은 9월15일 오후 5시 확정 발표된다. 수험생에게 성적은 9월29일 통지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임재만기자·연합뉴스

동신대총장배 전국 스트리트댄스 퍼포먼스 대회 '성료'

리헤이 등 유명 댄서 심사 참여 중·고등학생 250명 실력 겨뤄



제1회 동신대총장배 전국 스트리트댄스 퍼포먼스 대회가 전국에서 중·고등학생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동신대제공>

동신대학교가 제1회 총장배 전국 스트리트댄스 퍼포먼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스트리트댄스 온 스테이지'라는 부제로 지난 27일 동신대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가 주관하고 나주시 대한민국 마한문화제가 후원했다.

전국에서 참가 신청한 중·고등학생 250명이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 팀별, 개인별 스트리트댄스 실력을 겨뤘다.

특히 심사위원으로 '스트리 우먼 파이터'(스우파)에 출연했던 댄스 크루 '코카 앤버터'의 리더 리헤이를 비롯해 리브란, 오천, 마리드, 재상 등 스트리트댄스계의 유명 안무가와 댄서가 참여해 150여 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이번 대회에서 고등부는 '댄스포라이프' 팀이 대상과 상금 200만원을, 중등부는 '빈센트' 팀이 대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고등부 1-3등을 차지한 학생들에게는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입학 시 실기 가산점과 1학기 전액 장학금의 혜택을 준다.

동신대 이주희 총장은 "온 마음으로 춤을 사랑하고 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학생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참가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설된 동신대 공연예술무

용학과는 앞선 6월 '제1회 총장배 전국 학생무용 경연대회'를 개최, 420개 팀이 참여하는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는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학과로 급성장하고 있다.

/임재만기자

'지능형로봇 기술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성료

조선대, 지능형로봇 분야 우수 인재 발굴·육성

조선대학교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이 최근 '제1회 지능형로봇 기술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팀에 대한 상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시상식에는 최종 선정된 5개 팀, 민영돈 총장, 김태규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단장, 이성준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부단장, 고가진 교수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능형 로봇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 한 작품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팀을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5월 1차 아이디어 평가를 통해 상위 5개 팀을 선정해 작품 제작비를 지원했으며, 7월 실제 제작된 작품의 최종 평가를 통해 대상부터 장려상까지의 수상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GYROSTAIR(무인로봇 운송로봇)' 작품을 제작한 '5832'팀(명정욱, 백건우, 이용수 학생)이 상을 받았다.

다. 최우수상에는 'MAO(알약 자동 토출기)'를 제작한 '박라비'팀(박현우 학생)이 선정됐다. 이어 '불법 주정차 감시 드론'을 개발한 'PAC'팀(박상도, 윤병호, 이태영, 강영찬, 이민우, 전윤성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UAV-UAV/UGV/USV 협동 군집 플랫폼'의 'SBS'팀(남동현, 장창수, 박성민, 김범도, 윤태경 학생)과 'ROS를 활용한 로봇 학습 도구' 작품을 만든 'Mr.go'팀(김서현, 김신, 신성, 손강, 최재창)이 각각 장려상을 수여받았다.

김태규 사업단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단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8개 사업 중 하나인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맡고 있다.

/임재만기자

자금력 탄탄... '데스 밸리' 넘어 성공창업으로

동강대 BI센터 지역 창업유관기관 합동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동강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들의 원활한 자금력 확보를 위해 투자 유치 멘토링을 진행했다.

동강대 창업보육(BI)센터는 최근 나주시 전남콘텐츠산업혁신센터 2층 이아기마당에서 '광주 전남지역 창업유관기관 합동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실

시했다.

행사는 동강대 BI센터를 비롯해 광주대BI, 남부대BI, 동신대BI, 한국전력BI 등 5개 기관 BI센터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호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동강대 박경우 창업보육센터장은 "벤

처기업이 창업 후 2-5년의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 시기를 'Death Valley(죽음의 계곡)'라고 한다"며 "광주 전남지역 창업기업들이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금력을 통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 엑셀러레이팅 행사에는 지역 BI센터 입주기업 10곳이 참여해(주)이도경영파트너스,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전남엔젤투자클럽 소속 전문가로부터 IR피치데크(Pitch Deck) 작성법 등 체계적인 투

자유치 전략에 대해 조언을 들으며 기업의 가치와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동강대 BI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광주대, 남부대, 동신대 등 지역 대학 BI센터와 함께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기업 20곳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데이'를 열고 투자 마케팅 분야 전문가 그룹 멘토링을 실시했다.

또 향후 입주기업 합동 워크숍과 입주기업 IR-데이, 전문가 멘토링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임재만기자

전남대, 후기학위 수여식 개최

전남대학교가 최근 교내 민주마루(대강당)에서 2021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사 1천181명, 석사 413명, 박사 139명 등 총 1천733여명의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수여식은 졸업생과 가족, 친지, 선우배 등 1천명 가량이 식당과 대강당 앞 광장, 도서관 앞 5·18 광장 등에서 축하하듯 박수를 주고받으며 기념촬영을 하는 등 코로나19로 실종됐던 예전의 졸업식 분위기를 다시 연출했다.

서해린 학생(경영대학) 등 학부와 대

학원생 78명이 성적우수상을, 박성광 학생(정책대학원)이 공로상을, 그리고 김건욱 학생(문화사회과학대학)이 총장 명예학생 증서를 각각 수여받았다. 또 박근호 학생(공학대학) 등 3명이 동창회장상을 받았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졸업생 여러분은 대학생활의 절반을 코로나19에 빼앗기다시피 했지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거뜨하게 이겨낸 주인공이기도 하다"며 "이처럼 우리는 외부의 위협에 지체롭게 대처하고 변혁으로 승부하며 역사를 일구고 시대가치를 창출해 왔다"고 강조했다.

/임재만기자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p>후지의료기 PFC-7900</p> <p>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p> <p>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 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p>	<p>후지의료기 JP-870</p> <p>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 일본 의료기기인증</p> <p>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p>	<p>사파헬스케어 SF-5100</p> <p>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어원)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p> <p>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뮤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랩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시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롱 L스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p>	<p>사파헬스케어 SF-5000</p> <p>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p> <p>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시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뮤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랩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펌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p>
--	---	--	--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